

8천억원 규모 국가사업 '비행시험센터' 잡아라

국토부, 이달 중 사업계획·대상지 선정 용역 발주

고흥 vs 경남 사천 사활 건 경쟁 불가피
지리여건 고흥 월등...관련산업 사천 우위

국토해양부가 총 8천억원 규모의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사업계획·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 발주기로 한 가운데 전남(고흥)과 경남(사천)이 사활 건 유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항공센터(소형) 등 입지 여건과 공역(空域)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남 사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항공기산단클러스터'와 연계, 유체에 나설 전방이어서 국토부 최종 용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 발주기로 했다.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번 용역은 9개월간 이뤄지며 세부 사업계획과 대상지 선정 등이 핵심이다. 국토해양부가 국가비행종합시험

센터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8천억원(국비 7천8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는 동계동과 연구동, 관제탑, 장비구축, 그리고 활주로 2.4km를 신설하게 된다. 전남도는 고흥에 항공센터(2009년 구축 완료)가 있는 만큼 신개발 중·대형기, 헬기 등의 비행성능 시험이 가능한 장비, 활주로 등 기반 시설을 고흥만 간척지 내에 확충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흥에 있는 항공센터는 비행 시험동, 소형기 시험동, 주로터펠터와 시험설비, 꼬리터 회전시험 장치, 착륙장치 낙하시험 설비, 활주로(0.7km) 등을 갖추고 있다. 산업부는 2011년 항공센터 기반 확충사업을 확정하고 2016년까지 200억원을 투입, 활주로 확장(1.2km)에 나설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흥의 최대 장점은 민간항공기나 군용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역이다. 고흥의 공역은 전국 최고 수준(2002년 항공우주연구원 조사 결과 절대 우수 지역)으로 비행시험에 최적화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고흥이 각종 지표에서 앞서 있지만 유치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경남 사천이 관련 산업 집적화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사천 '항공기산업단지클러스터'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 이미 항공기 제작 업체 상당수가 사천을 중심으로 집적화가 이뤄져 있는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고흥에 유치되면 관련 산업 등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중요성이 큰 만큼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민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3일 열린 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 대상지를 고흥항공센터로 선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재정기자2@kjdaily.com

장마 본격화 전남 재해 비상

위험지구 195곳...D급 교량 15곳 예산 없어 방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지역에 재해 비상이 걸렸다. 재해위험지구가 195곳에 달하는 데다, 교량 20곳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급인 D등급이기 때문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195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정밀진단 결과, 교량 506곳 가운데 20곳이 안전사고발생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전남도가 4천94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있지만 정비율은 45%에 머물고 있다.

D등급 교량 중 개축을 끝낸 곳은 창정교(곡성 입면)와 덕림교(순천

향전) 등 2곳 뿐이다. D등급 교량 중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원소교(무안 정계)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곳은 실시 설계 중이거나 설계를 끝냈지만 사업비가 없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월봉교(화순이양), 묵곡1교(화순이양) 등 1975년 건설된 다리 2곳은 설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D등급 교량을 모두 정비하기 위해서는 1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올 추경예산에 30억원을 반영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3개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모두 복구 완료됐지만 공공시설물(3376건)은 막바지 공사(공정률은 94%

중)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동구 소태천과 북구 장등저수지 등 6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나서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비해 광주지역 37개 하천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하천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시설물 보강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생활주변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수기자 kspen@kjdaily.com



광주에 모인 유네스코 자문위원들

우리나라의 '난중일기'와 '세마을운동 기록물' 등 54개국 84점의 기록유산을 심의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개막해 4일동안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강운태 광주시장과 변영섭 문화재청장, 알리산드라 커민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등 국제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김영근기자 kyg@kjdaily.com

'임 행진곡' 유네스코 등재 논리 시급

동일 소재 기록물 기념유산 추가 등재 전례 없어
광주 자문회의, 난중일기·세마을 운동 등재 유력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왜곡·편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추진중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가등재의 난항이 예상돼 국제 자문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재청이 공동주최하는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IAC-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이날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돼 21일까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기록유산 국제

자문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출한 '난중일기'와 '세마을운동 기록물'을 비롯해 54개국 84점의 기록유산이 심의된다. 하지만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가등재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5·18기념식에서 제창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온 이 노래가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으로 세계적 공인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 5·18 기록물에 이어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등재 전례가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새로운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왜곡·편파 등 각종 위협에 노출돼 자칫 원형 훼손이 우려된다면 점을 설득력 있게 유네스코에 전달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가 이날 심의한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쓴 난

중일기 7책과 1970년대 추진된 세마을운동 기록물은 등재가 유력시된다. 만약 이번에도 등재가 결정되면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이어 한국에서 10번째다. 한편 세계기록유산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1939년 작 미국 영화인 '오즈의 마법사'를 포함해 비석, 양피지 문서, 악보, 영화 필름, 오디오 레코딩 등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들이 등재돼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해인사 대장경판과 계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9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정성민기자 moon@kjdaily.com

광주은행 차기행장 선임 '들썩'

오늘 행장후보추천위 가동...향후 매각판도 가늠

광주은행이 들썩이고 있다. 송기진 은행장의 사표 제출 이후 차기행장 선임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선을 위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가 본격 가동된다. 차기 행장 인선 결과에 따라 광주은행의 향후 매각 판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장 선임은 광주은행 설립 최초로 내부 출신 기용 여부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부의 매각 방안과 관련한

변수도 많아 선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19일 광주은행 행추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차기 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공모를 거칠 경우 2주 정도, 공모방식이 아니면 2-3일 내에 차기 행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기 행장으로는 우리금융 전직 임원을 비롯 광주은행 부행장급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소문만 무

성할 뿐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인사는 없는 상태다.

지역에서는 새 행장은 내부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경남은행과 달리 광주은행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인수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인수 후보군을 해외 자본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보다는 풍부한 경쟁이 행장 선임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광주·경남은행 매각과 관련, "지역적 정서 등을 고려하면 주관직일 수가 있어 최고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고가 매각은 지역내에서 요구

하고 있는 '지역 환원'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정부의 매각 원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도 행장 선임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관범기자 coolguy@kjdaily.com



금호월드
KUMHO WORLD

즐거움 쇼핑 행복만 만족
T.350-8114

http://safe.korea.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만들어요!

4대악 없는 안전한 세상

하나	따뜻한 관심으로 성폭력 예방해요
둘	폭력 없는 학교생활 함께 만들어요
셋	가정폭력, 집안일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넷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만들어요

성폭력 1566	학교폭력 117	가정폭력 112	불량식품 1599
-------------	-------------	-------------	--------------

